

전자우편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경어법 실현 요소에 대한 경향성 분석

박 성 일*

< 次 例 >

- I. 서론
- II. 문의 전자우편 텍스트의 구성
- III. 경어법 실현 요소에 따른 사용 양상
- IV. 결론 및 제안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고에서는 현대 정보통신 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전자우편의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되 이 중에서도 특정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입학문의 전자우편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주로 전자우편에 나타난 경어법 실현 요소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한국인 모어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모어화자와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경어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양상을 살피고 두 집단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에서 경어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어 경어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또는 기술의 기점은 최현배(1929)이다. 여기서는 형태론적 입장에서 아주낮춤, 예사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의 네 등분과 등외로 반말을 넣어 5등급을 인정했다.(황적륜, 1976: 191) 그동안의 경어법 연구에서 상대경어법의 화계와 격식성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으며 논란도 많았다. 경어법 연구에 관하여 황적륜(1976), 성기철(1990), 이윤하(2001), 이정복(2006) 등에 정리되어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어법 교육 연구가 최근 들어 학위논문으로 여러 편 나오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어법에 대해 대조 분석 한 고류양(2001), 우홍예(2009)의 연구, 한·중 문장 번역식 평가지로 경어법 실태를 조사하여 오류를 분석한 선광용(2007)의 연구, 한·중 경어법 체계를 어휘, 문법적 형식에 따라 비교하고 오류양상을 기술한 마준정(2008), 이주리(2008), 이리(2009) 등과 같은 석사학위 논문이 다수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된 특징은 한·중 경어법 대조연구를 했거나 혹은 대조연구에 기초하여 학습자 오류분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는 중국어는 문법에 의한 경어법 실현 방식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어휘의 대조연구는 가능하지만 문법에 의한 대조연구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국어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주체, 객체, 상대경어법 체계¹⁾를

1) 현재 한국의 학교문법에서 사용되는 높임법 체계이다. 이는 허옹(1954)이 15세기 국어의 존칭문제를 통사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주체존대, 객체존대, 상대존대로 분류

그대로 한국어 교육에 응용하고자 한 점도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개념자체의 난해성 등 원인으로 인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직접 응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경어법 교육의 박사 학위논문으로는 허봉자 (200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완성형 설문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인 모어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양자를 비교하면서 학습자 오류 분석을 진행했다. 담화완성형 설문 방식은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설문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그 동안 언어교육 연구에 자주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 작성된 학습자 경어법 오류를 모어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빈도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자료가 아닌 가상 상황에서 수집된 결과라는 점, 학교문법의 경어법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자한 점, 상대경어법에서 문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3. 연구 방법과 대상 및 한계

그동안 한국인을 위한 경어법 교육 연구에서 경어법에 대한 얇고 실제

하여 기술한데서 비롯된다(황적륜, 1976: 191 재인용). 그러나 허옹의 체계에서 객체존대의 인정여부를 놓고 일찍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승녕(1964)은 객체설정이 문장 구조 무시, 문장에서 객체선정의 자의성 등 이유를 들어 객체존대 설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구본관(2008: 36)에서는 학교 문법에서의 상대높임법이 문장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체법과 동시에 어밀어미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객체높임법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높임뿐 아니라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기존의 학교문법 체계 자체가 재고되어야 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석재(2008: 57-59)는 언어의 실용적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에서는 인정에 의한 분류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사용 사이의 간극이 한국인 화자들에게 있음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담임선생님께 지시를 받을 때 “선생님,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 주십시오”가 자연스럽다고 답한 한국인 화자는 40.6%이고 어색하다고 답한 학생은 59.4%에 달했다. 선생님이라는 대상에 대해 격식체 높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너무 어색해서, 또는 본인과 어울리는 말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비격식체 높임 종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고범혜, 2008: 30). 한국인 모어화자들도 잘 쓰지 않고 어색하게 느끼는 경어법 규칙을 외국인 화자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관행되어 오던 외국인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어법 오류분석에서는 연구자 직관에 따른 판정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도 한국 사회에서의 경어법 사용 실태를 어느 정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경어법은 언어의 여러 형식 요소 중에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실제 사회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민현식(2007: 56-57)에서는 규범규칙을 처방규칙(prescriptive rule)과 기술규칙(descriptive rule)으로 구분하고 있다. 처방규칙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거나 써야 한다”는 식의 규칙이고 기술규칙은 언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주고 그 현상을 인정해 주는 방식의 규칙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기술이 아니라 “이라이려하게 쓰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일반화(generalization) 방식의 기술을 하는 것이다. 본고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처방규칙보다는 기술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의사소통교육에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어민 화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경어법 사용을 기준으로 학습자 집단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는 집단 간의 경향성을 고찰하는 것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인 모어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경어법 사용 양상을

밝히기 위해 한국 S대학교의 입학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전자우편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입학 문의 전자우편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자기 상황을 진술하고 본인이 모르는 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장을 요구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공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언어적으로는 경어법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며 구어체 문어²⁾의 성격을 띤다. 전자우편 발신자는 주로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을 지원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들이다. 중국 국적의 한국어 학습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족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재중동포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인 모어화자(이하 '모어화자'로 칭함)와 민족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 집단(이하 '학습자'로 칭함)을 서로 비교하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언어 자료는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전자우편 중에서 국적에 따라 무작위로 70건씩 모두 140건을 선정했고 어절 수는 전체 약 1만 1천 어절이다.³⁾

이 언어자료는 설문지나 역할극을 통해 얻은 가상 상황에서의 언어자료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언어이므로 언어사용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구체 항목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경향성 분석에 사용되겠고 또한 문의 관련 전자우편이라는 특정 과제 수행 자료이므로 경어법의 기타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민현식(1994)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단순히 이분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 네 가지로 구분했다. 즉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이다.

3) 여기서 어절은 계열관계와 통합관계에 따라 마디지어지는 한 덩어리의 말을 일컫는다(남기심·고영근, 1993: 43 참조). 예컨대, '높은 하늘이 더욱 푸르다'에서 '높은', '하늘이', '더욱', '푸르다'와 같은 4개 어절로 계산된다.

II. 문의 전자우편 텍스트의 구성

일반 편지는 ‘첫머리, 본문, 끝맺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머리’는 다시 ‘시작하는 말’, ‘문안’, ‘자기안부’로 되고, ‘끝맺음’은 ‘글인사 또는 맷음말’, ‘날짜와 이름’, ‘붙임말’로 나뉜다(서정수, 1991: 600-608). 그러나 전자우편에서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제목, 날짜’가 함께 첫머리에 나오기에 다시 적는 일은 수의성이 높다. 일반 편지와 전자우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문의 관련 전자우편 텍스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을 보인다. 첫머리에는 ‘수신자에 대한 호칭’, ‘처음 인사말’이 있고, 본문은 ‘상황에 대한 진술’과 함께 ‘문의하는 내용’ 및 ‘답변 요청’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은 ‘끌인사’로 마무리한다.⁴⁾ 본고의 고찰 대상 텍스트는 내용면에서는 입학 문의 전자우편이고 텍스트 구성 면에서도 일정한 기본 구성이 지켜지고 있다. 기본 구성을 보기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입학 문의 전자우편의 사례

- 담당자님:
- 안녕하세요,
- 저는 전 과정 해외이수자 특별전형 신청자입니다. 제가 서류들을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 제 SAT성적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성적표 없이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증명을 할 수 있나요?
- 자세히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4) 이외에도 전자우편으로 된 편지가 일반 편지와 다른 점은 ‘제목’을 별도로 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목’은 일반 편지의 ‘받는 사람’ 혹은 ‘보내는 사람’의 기능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와 달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기능을 갖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제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위의 사례에서 a는 받는 사람에 대한 호칭어이고, b는 처음 인사말이며, c는 자기 상황을 진술하는 진술행위⁵⁾로서 평서문으로 수행되고, d는 문의 내용인 질문행위로서 문법 형태로는 보통 의문문으로 수행되며 때로는 평서문과 같은 간접화행의 형식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e는 답장을 요청하는 요청행위로서 명령문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시 평서문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f는 끝인사로서 처음인사 b와 함께 인사행위에 속하며 다양한 문법 형태로 수행된다. 이와 같이 문의를 위한 전자우편 텍스트는 진술화행, 질문화행, 요청화행, 인사화행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문법적 형태로 다양하게 수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III. 경어법 실현 요소에 따른 사용 양상

1. 어휘에 의한 경어법의 사용

한국어의 경어법은 존대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어휘적, 문법적 요소들에 의해 실현된다. 어휘에 의한 경어법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다루어야 함을 제기한 것은 임홍빈(1990)이며 그 이후로 경어법을 다룬 논저에서 어휘에 의한 경어법도 중시 받기 시작했다(조남호, 2006: 379 참조). 민현식(1999: 179-192)에서는 현대 국어의 경어법을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들에 의해 실현되는 어미 변화에 의한 높임법과 체언이나 용언, 조사를 통

5) Bach-Harnish(1979)는 언어행위 유형을 통보적 언표내적 행위와 관습적 언표내적 행위로 나누고 전자는 다시 언약행위, 지시행위, 진술행위, 인사행위로 분류했으며, 후자는 유효행위, 판정행위로 분류했다. 위의 요청행위와 질문행위는 지시행위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이준희, 2000: 34에서 재인용).

해 실현되는 어휘 방식에 의한 높임법으로 구분하여 높임법의 오용 현상들에 대해 살폈다. 김정남(2008: 9)은 외국인을 위한 경어법 교육과 관련된 문법 및 어휘 항목으로 '문말어미, 선어말어미, 대명사, 명사, 조사, 동사/형용사'와 같은 여섯 가지 구분을 하였다.⁶⁾ 오미정(2007: 198)에서는 한국어 존대 표현의 구성 요소를 존대어휘, 존대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조사 '-요'로 구분하고 존대 어휘의 하위범주에 존대 조사, 존대 체언, 존대 용언, 존대 부사를 두어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의 경어법 관련 구성 요소들을 참조하여 어휘에 의한 경어법 구성요소에 존대 조사 '-께', '-께서'를, 존대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접사, 관형사를 두고 존대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시켰다. 문법에 의한 요소로는 선어말어미 '-시-'와 종결어미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위의 어휘에 의한 요소와 종결어미의 사용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어법을 실현하는 체언으로 존대의 의미가 있는 한자어 '귀-'와 접미사 '-님', '-분', 그리고 높임 명사 '말씀', '귀하'가 사용되었으며 대명사는 모두 겸양어로 쓰이는 1인칭 대명사 '저'와 '저희'가 쓰였고 용언은 '계시다, 뵙다, 드리다, 올리다, 여쭈다'였다.⁷⁾ 어휘로 표현되는 경어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존대 어휘: 존대 조사(-께, -께서)

존대 체언(말씀, 귀하, 저, 저희, 귀-, -님, -분 등)

존대 용언(계시다, 뵙다, 드리다, 올리다, 여쭈다 등)

6) '-님', '-씨'와 같은 접미사는 명사범주로 넣었다고 각주로 밝히고 있다.

7) 용언은 오미정(2005: 232)에서 제시한 경어 표현 용언 목록을 참조하여 조사했다. 제시한 고유어 존대 표현 동사는 다음과 같다. 계시다, 돌아가다, 들다, 자시다, 잡수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모시다, 빠다, 뵙다, (받잡다),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사뢰다), 아뢰다, 여쭈다, 여쭙다

위의 어휘에 의한 경어법의 사용 빈도를 합계로 보면 한국인 모어화자가 모두 273회, 중국인 학습자는 256회 사용하여 모어화자가 양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어법 실현 요소가 얼마만큼 빈번히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전체 어절에서의 누적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한다. 한국인 모어화자의 전체 어절수는 5900어절로 중국인 학습자의 4359어절에 비해 훨씬 많았다. 따라서 전체 어절수에 따른 경어법의 누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어휘에 의한 경어법 누적 비율

구 분	모어화자	학습자
전체 어절수	5900	4359
어휘에 의한 경어법	273	256
누적 비율(%)	4.6	5.9

모어화자 텍스트의 전체 어절수가 많으므로 어휘에 의한 경어법 사용 누적 비율이 4.6%인 반면, 학습자의 누적 비율은 5.9%에 달해 중국인 학습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어휘적 경어법 표현을 더 빈번히 사용했음을 의미하고 한국어의 존대 어휘 형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존대 어휘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종결어미에 의한 경어법의 사용

한국어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인 서술어에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문장을 마치거나 청자에 대한 존대를 표시한다. 이때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할뿐더러 상대경어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자기 상황을 전술하는 문장에서는 보통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평서문으

로 표현하고, 질문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의문문으로 표현하게 된다. 다음은 진술행위와 질문행위에서 나타난 두 집단의 언어사용 양상을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진술행위에서 종결어미의 사용

자기 상황을 진술하여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진술행위⁸⁾는 주로 평서형 종결어미로 수행된다. 언어 자료에서 평서형 종결어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면 다음과 같다.⁹⁾

〈표 2〉 평서형 종결어미의 사용빈도

구 분	모어화자	학습자
합소체	315	273
해요체	100	69
비완결형	5	3
합 계	420	345

위의 표를 비율에 따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진술의 적정조건(이준희, 2000: 111 참조)

명제 내용조건: 화자나 청자의 과거나 미래 행위 또는 사건(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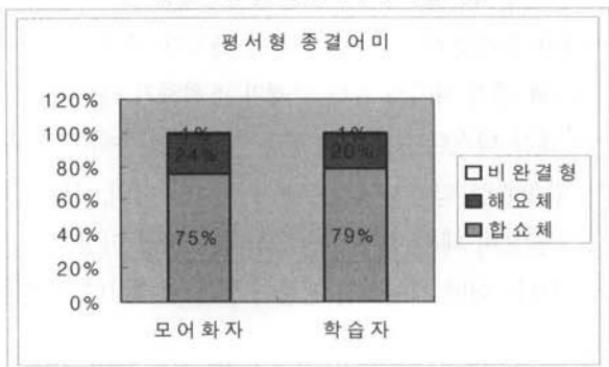
예비 조건: 화자나 청자는 명제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관계가 있다.

성실 조건: 화자와 청자는 명제내용을 이해한다.

본질 조건: 화자나 청자의 의도가 있거나 있게 된다.

9) 본고의 문의 관련 텍스트 구조에서 호칭어는 종결어미로 실현되지 않으며, 편지의 인사부분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세요'와 같은 관용 표현이 자주 사용되므로 문장에서의 종결어미에 의한 경어법 사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호칭어와 인사부분은 본 절의 통계에서는 제외하고 진술, 질문, 요청의 본문 부분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림 1〉 평서형 종결어미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기 상황을 소개하는 평서문에서 두 집단 모두 아주 높임 화계인 ‘-ㅂ니다’와 같은 합쇼체 종결어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모어화자의 해요체 비율은 24%를 차지하여 20%인 학습자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합쇼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기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저는 현재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외에서 공부를 해왔고 현재 2개월 후면 졸업을 합니다. 지금 외국 대학 몇 곳에서 합격증을 받았지만, ○○대에도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진술행위 부분에서 모어화자와 학습자 집단 모두 합쇼체 종결형 어미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서문에서 합쇼체 위주의 경어법이 사용된 이유를 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유송영, 1994 참조). 첫째, 화자가 청자를 합쇼체로 대우하는 것은 청자가 화자보다 ‘힘’에 있어서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학 관련 문의에서 입학 신청을 위해 문

의하는 화자와 선발기관을 대표하는 청자사이에는 '힘'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청자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둘째, 화자가 청자를 합쇼체로 대우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유대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찰 대상 텍스트는 화자가 공공 기관에 발송하는 전자우편이므로 수신자는 입학관련 담당자이겠으나 수신자의 나이, 성별, 직급 등은 보통 공개되지 않으며 때론 전자우편 수신자가 한명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화자와 청자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이며 소원한 유대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입학 신청을 위해 문의하는 화자와 선발기관을 대표하는 청자사이에는 커다란 '힘'의 관계를 가지며, 또 화자와 청자사이에는 소원한 관계로서 '유대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합쇼체로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합쇼체와 해요체는 고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동적임이 관찰되며 같은 화자,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 (3)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 인데 저는 현재 대학교 졸업 예정이고 고등학교도 해외에서 다녔거든요. [모어화자]

위와 같이 평서문에서 합쇼체와 해요체의 변동이 있는 텍스트가 모어화자 집단에서는 37건, 학습자 집단에서는 28건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두 집단이 모두 합쇼체 위주의 평서문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사용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모어화자 집단에서는 화계를 바꾸지 않고 전부 해요체를 사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학습자 집단 텍스트에서

는 전부 해요체를 사용한 사례가 2건이 발견되었다.

- (4) 제가 9월에 대학원 진학하고 싶은 유학생인데요. 근데 수험 번호 잊어 버렸어요. 제 지원은 식품 영양 학과예요. 이름은 ○○이에요 (이하 생략) [학습자]

그리고 해요체의 사용에 있어서 모어화자는 “화자가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정보를 ‘확인하여 서술’할 때 사용”(한길, 2004: 156)되는 ‘-네요’와 ‘-군요’를 학습자에 비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학습자는 “화자의 짐작이나 상념이 내포되지 아니한 단순한 설명, 의문, 명령, 공동으로 서실적(敍實的)”인 ‘-어요’(고영근, 1976: 44)의 사용이 35회로 단 7회에 그친 모어화자에 비해 많았다. 예컨대,

- (5) a. 홈페이지엔 아직까지 없네요 [모어화자]
 b. 홈페이지엔 아직까지 없어요 [학습자]

- (6) a. 아무리 찾아봐도 전기 모집만 있더군요 [모어화자]
 b. 아무리 찾아봐도 전기 모집만 있어요 [학습자]

입학 모집 안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상황에서 지원자는 모집 안내를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예의라 할 수 있다. 한국인 화자들은 해요체에서 ‘-네요’, ‘-군요’와 같이 화자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부족하므로 확인하고 싶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인지시킴으로서 담화에서의 협력과 공손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 질문행위에서 종결어미의 사용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답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인데 의문형 종결어미로 성립되며 주로 질문행위¹⁰⁾를 수행한다. 모 어화자와 학습자의 의문형 종결어미의 전체 사용 비율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의문형 종결어미의 사용비도

구 분	모어화자	학습자
합소체	9	62
해요체	102	70
해체 ¹¹⁾	17	0
합 계	128	132

위의 표를 비율에 따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질문의 적정 조건(이준희, 2000: 101 참조)

명제 내용 조건: 어떤 명제라도 된다.

예비 조건: 1. 화자는 답을 모른다. 곧 그 명제가 참인지를 알지 못한다. 또는 명제 함수인 경우에 그 명제를 참되게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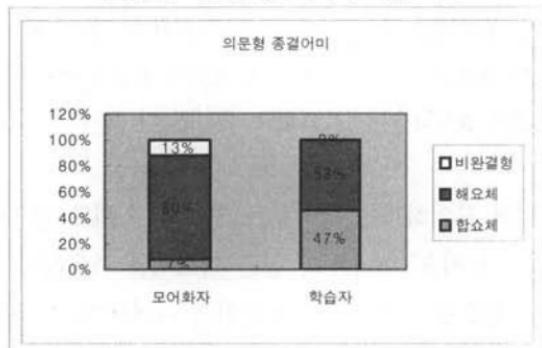
2. 물어보지 않아도 청자가 그 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해서 화자와 청자는 다같이 분명하지 않다. 곧 화자와 청자는 모두 청자가 질문 받았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성실 조건: 화자는 이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

본질 조건: 이 말을 함으로써 화자는 청자로부터 이 정보를 유도해 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1) 해체는 전부 '재외국민 전형이 따로 있는지? 수시2로 넣어야 하는지?'와 같이 '-는지'의 사용이었다.

〈그림 2〉 의문형 종결어미의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집단 간 합쇼체와 해요체의 사용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모어화자는 합쇼체 종결어미를 9회만 사용한 반면 해요체는 10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학습자는 합쇼체 62회, 해요체 70회로 나타났다. 모어화자의 합쇼체 의문형 종결어미의 사용비율은 7%이고 해요체는 80%가 되었으며 학습자의 합쇼체 비율은 47%, 해요체는 53%를 차지하여 의문문에서 모어화자의 해요체 사용비율이 합쇼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습자는 비슷한 비율로 사용했다. 이는 평서문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한국인 모어화자는 평서문에서는 합쇼체를 사용하다가도 의문문은 해요체로 바꾸어서 사용했다.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합쇼체로 된 의문문을 사용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 (7) 저는 경영학과에 인터넷 접수를 마친 ○○라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서류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게 있어서 메일 보냅니다.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는 원본만 제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사본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요? 사본을 원본과 대조해서 제출하는 것은 안 되나요? [모어화자]

- (8) 저는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관된 몇 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배우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특히 영어가 어렵증명서 필요있습니까? TOEFL, IELTS 다 됩니까? [학습자]

위의 예(7)에서 모어화자는 평서문은 모두 합쇼체로 진술했지만 의문문은 '-는가요', '-는지요', '-나요'와 같은 해요체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다. 의문문에서 해요체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이러한 현상은 '응답을 요구하는 발화들'¹²⁾에 합쇼체보다는 해요체가 자주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유송영, 1994)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유송영(1994: 302-306)에서는 이런 현상을 청자를 담화 속에 관련시키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에 기인한 것, 즉 화자는 청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존의 장(場)을 마련함을 통해서 청자와의 '유대'관계를 넓히려고 노력하며, 화자의 그러한 노력은 해요체에 의한 청자 경어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예(7)의 문장을 수신자의 '힘'의 속성에만 의지하여 '-습니까'로 바꾼다면 예(8)처럼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짐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청자와의 유대 관계를 넓히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수록 해요체의 사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요체의 구체적 사용에서 있어서 모어화자 텍스트에서는 '-는가요'가 40회, '-는지요'가 27회 사용되어 각각 10회, 11회의 사용에 그친 학습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습자는 '-어요'의 사용이 13회로서 1회만 나타난 모어화자에 비해 많았다.

12) '응답을 요구하는 발화들'(response-demanding utterances)이란 화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물음이나 명령에 청자가 행동 또는 말로써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화로 의문문이나 명령문들이 이에 해당된다.

- (9) a. 만약 졸업 하지 않고도 원서를 넣을 수 있다면 12학년 1학기에 원서를 넣게 되는데 가능한가요? [모어화자]
 b. 저는 외대의 학위는 내년 2월 말 쯤 받을 예정인데 그때 귀 학교 신청이 가능해요? [학습자]
- (10) a. 가능하다면 영어 성적 첨부를 늦출 수 있는지요? [모어화자]
 b. 선생님이 찾으면 알려 줄 수 있어요? [학습자]

'의혹'의 의미를 가지는 '-는가요'는 의문의 형태이긴 하지만 화자 자신의 의혹을 강하게 나타낼 뿐 청자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성기철, 1985: 108; 한길, 1991: 82) 완곡하면서도 공손의 효과를 낸다. 또한 '-는지요'는 간접성의 정도가 심해서 거의 혼잣말에 가까우므로 공손의 측면에서 '-는가요'와 '-는지요'는 화자의 짐작이나 상념이 내포되지 않고 단순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요'(고영근, 1976: 44)의 사용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낸다.

모어화자는 해요체 의문형 종결어미 뿐만아니라 평서형으로 바꾸어서 간접표현 방식으로 질문의 공손성을 실현하기도 한다. 예컨대,

- (11) a. 입학 절차가 어떻습니까?
 b. 입학 절차에 관한 정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예(11)는 모두 문의하는 내용이지만 a는 직접 의문문으로 질문했고 b는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 1인칭 시점에서 평서문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b는 질문화행과 같은 상관적 장면에서 형식적으로 의문문으로 수행하는 대신에 평서문을 선택함으로써 타인이 언어로나 행동으로 반응해야 할 부담을 줄임으로서 공손성을 실현하고 있다(김명운, 2009:

93). 위의 예문 (11)a처럼 의문문으로 표현된 질문은 모어화자가 128회, 학습자가 132회로 비슷했으나 b처럼 '-고 싶다', '-면 좋겠다', '-궁금하다', '-기 바라다'와 같은 전형적인 형태를 부가함으로써 공손성이 실현된 질문 횟수는 각각 89회와 16회로 한국인 모어화자가 중국인 학습자에 비해 훨씬 많았다.

IV. 결론 및 제안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전자우편 언어자료에 나타난 경어법 실현 요소들을 한국인 모어화자 집단과의 양적인 비교를 통해 그 경향성을 고찰했다.

어휘로 실현되는 경어법의 누적 사용비율에 있어서 학습자는 모어화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경어법 사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어휘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적극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서문에서 두 집단 모두 합쇼체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 화자와 청자 간에 '힘'의 관계가 존재하고 '유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쇼체로 청자를 대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을 요구하는 발화를 수행하는 의문문에서 모어화자들은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설령 평서문에서 합쇼체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의문문에서는 해요체로 바꾸어서 표현했다. 이는 청자와의 '유대'관계를 넓히려는 노력이 해요체에 의한 청자 경어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학습자는 합쇼체와 해요체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여 모어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모어화자는 '-는가', '-는지'와 같이 간접성이 높은

해요체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질문의 공손성을 실현하는 간접화행의 사용비율도 학습자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향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에서 맞다 틀린다는식의 처방규칙 규범의 관점보다는 모어화자들의 언어사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서 기술규칙의 관점에 따라 교육적 진단을 내리고 기술규칙을 제시하는 연구와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단순 화계에 대한 교육보다는 구체 상황과 문체에 따라 경어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의문문에서 모어화자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이 부분의 교육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언어치료의 양적 제한으로 인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경어법 실현 요소 사용의 총체적 경향성만 확인하고 개별 양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지 하지 못했다. 향후 계속 보완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고류양(2001),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 존대표현 대조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범혜(2009), 「국어 높임법에 대한 문법 문해력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1976), 「현대국어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pp.17-53.
- 구본관(2008), 「문법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경어법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10. 4. 30. 투고되었으며, 2010. 5. 17. 심사가 시작되어 2010. 5. 2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6. 1.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749-778.
- 김명운(2009), 「현대국어 공손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남(2008), 「한국어 담화교육을 위한 논의-한국어 경어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19-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0.
- 김태엽(2007), 『한국어 대우법』, 역락.
- 남기심 · 고영근(1993), 『표준국어 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마준정(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지도 방안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제83집, 한국어교육학회, pp.113-152.
- _____ (1999),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_____ (2007), 「구어적 통용과 문어적 오용」, 『문법교육』 제6집, 한국문법교육학회, pp.53-113.
- 박성일(2010), 「이중언어 화자의 한국어 쓰기 텍스트 비교 분석」, 이중언어학회 제24차 전국학술대회논문집.
- 서정수(1991),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한강문화사.
- 선광용(2007),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경어법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기철(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_____ (1990), 「공손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pp. 401-408.
- 오미정(2005), 「한국어의 존대 어휘 연구-고유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27집, 한국어학회, pp.225-248.
- _____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존대법 교육-담화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제22집, 한국의미학회, pp.185-208.
- 우홍예(2009), 「한국어와 중국어 경어법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영(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1)-불특정 청자 대우를 중심으로-」, 『국어학』 제24집, 국어학회, pp.291-317.

- 이 리(200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서란(2000), 「현대국어 상대경어법 등급체계의 연구-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녕(1964),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26, 진단학회, pp.309-366.
- 이정복(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제47집, 국어학회, pp.407-448.
- 이정화(2004), 「전자우편에 나타나는 해요체와 합쇼체의 사용 양상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수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2008),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의문문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제19-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6.
- 이준희(2000), 『간접화행』, 역락.
- 이윤하(2001), 『현대국어의 대우법 연구』, 역락.
- 장진하(200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미 오류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남호(2006), 「국어 대우법의 어휘론적 이해」, 『국어학』 제47집, 국어학회, pp. 377-405.
- 조준학(1986), 「공손의 조건」, 『영어영문학』 32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pp. 297-316.
- 최석재(2008), 「국어대우법의 체계화 연구」, 박이정.
- 한 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출판부.
- _____ (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 허봉자(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 박이정.
- 황적륜(1976), 「국어의 존대법」,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pp.191-200.

■ 국문초록

전자우편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경어법 실현 요소에 대한 경향성 분석

박성일

본고는 한국인 모어화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경어법 사용을 기준으로 외국인 화자 집단의 경어법 사용 경향을 고찰하여 교육적 진단을 내리고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것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전자우편 언어자료에 나타난 경어법 실현 요소들을 한국인 모어화자 집단과의 양적인 비교를 통해 사용 경향성을 고찰했다. 경어법 실현 요소의 사용 경향에 대한 조사 결과 중국인 화자들은 어휘에 의한 경어법 사용에서 높은 누적비율을 보였고, 평서형 어미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의문형 어미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본고에서는 기술규칙의 관점에 따른 연구와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의문문의 경어법 교육 보완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본고는 실제 사용하는 언어자료를 활용하고 모어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양적으로 분석을 시도했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경어법, 전자우편, 기술규칙, 종결어미, 평서문, 의문문

■ Abstract

Study on the tendency in using the honorifics shown in the E-mails of the Chinese learners

Piao, Chengri

In this work, the tendency of the foreigner's usage of the honorifics was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the native Korean's usage of the honorifics in daily life. This work is crucial for the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since it provides educational diagnosis and establishes educational contents. This work investigated the usage tendency of the honorifics of the Chinese learners shown in their E-mails by comparing with the native Korean's tendency. Chinese speakers showed high usage-rate of the honorifics using a vocabulary. This work found that the Korean and Chinese didn't show any difference in using the assertive ending of a word, while showing big difference in using the interrogative ending of a word. This work proposed that the methods of study and education of honorifics should be based on the descriptive rule,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perfect the education methods of honorifics in interrogative sentences. This work is meaningful in respect of using the language data actually used and analyzing the tendency quantitatively by comparing with the native speakers.

[Key words] honorifics, E-mail, descriptive rule, final ending, assertive sentence,
interrogative sentence